

2013	5번
전공A	기입형

5. 다음 자료는 여러 개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 국어 단어의 발음 과정을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음운 변동의 유형을 각각 쓰시오. [2점]

(1)	(2)
/불여우/	/꽃잎/
↓..... ㉠	↓..... ㉡
불녀우	입
↓..... ㉢	↓..... ㉣
[불려우]	닙
	↓..... ㉤
	[꼇닙]

〈보기〉

(1)과 (2)의 음운 변동 중에서 ㉠과 ㉣는 음의 (㉠)이고, ㉢, ㉤, ㉡는 음의 (㉡)이다.

※ 기본아이디어 선생님, 음운 변동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음운 변동에 사용되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이 문제는 학습자가 09개정 문법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문제이다.

- 1) 음운 변동이란 무엇인가
- 2) 음운 변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3) 현행 학교 문법의 분류기준과 종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 음운 변동의 분류기준과 음운 변동의 종류를 적절한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 보자

- 음운변동의 분류기준에 따른 변동의 유형
- 각 음운 현상은 음운 정보를 바탕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보편적이지만 형태 정보에 근거하여 음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음화라든가 음운의 축약, 사잇소리 현상 등을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
- 한글맞춤법이나 일상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단어나 문장에서 음운 변동의 양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학습자료를 선정, 음운론적 제약에 바탕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음운론적 제약’에 대한 배경지식을 숙지하도록! (외래어 표기법 또한 음운 현상을 음운론적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두음법칙, 구개음화 등- 함께 정리해 보자)
- 자음동화 중 동화의 방향에 따른 분류 중 종전에 상호동화로 설명할 수 있었던 단어 : 독립
- 설측음의 비음화
- 설측음화

음운변동의종류	사례(한글맞춤법활용) 제 00 항	음운규칙(환경) A→B > _C_	예외(다만,불임)	비고 (제약)
교체	음절끝소리 → 구개음화.. 비음화..			
탈락	자음탈락.. 모음탈락..			
축약	자음축약.. 모음축약..			
첨가	ㄴ첨가.. ㄷ첨가..			

2013	6번
전공A	기입형

6. 다음은 국어의 음운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과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2점]

고려 사항	예시	설명
최소 대립쌍	· 쌀 : 살 · 남 : 남 · 옥 : 음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하나의 소리가 차이 남으로써 두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의 짝을 말한다.
음성적 유사성	· ‘하늘’의 ‘ㅎ’과 땅의 ‘ㅇ’	음성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두 소리는 다른 음운이 된다.
(㉠)	· ‘바다’의 ‘ㅂ’ [p] · ‘어부’의 ‘ㅂ’ [p] · ‘어업’의 ‘ㅂ’ [p̚]	두 개 이상의 소리가 동일한 환경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형성	· ㄱ : ㅋ : ㆁ · (㉡)	음운이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체계적 대칭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시에서 평음, 격음, 경음의 대립 양상이 연구개음뿐만 아니라 양순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 아이디어 선생님,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음운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ㅇ’가 음운에 해당하나요?..

이 문제의 기본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음운이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개념을 배웠음에도 평가의 결과 평가 자료로 제시한 단어나 문장에서 음운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를 냈을 때 틀리는 학생이 다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음운의 개념과 음운이 성립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음운과 음성, 형태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계한 학습 자료이다

□ 수업내용 : 음운이란 무엇인가

*자료 선정시 유의점

가. 의미를 구별해주는 : 최소 대립쌍, 상보적 분포

나. 소리의 최소단위 : 음성적 유사성, 동형성

□ 평가내용

음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형태소를 정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형태소의 개념 : 의미를 지닌(유의적) + 소리의 최소 단위 (형태와 형태소의 개념 정확히 숙지할 것)
- 형태소의 분류기준에 따른 형태소의 종류와 각각의 특성
- 기준형의 개념과 설정 기준
- 음운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
- [생성 음운론] 기저형과 표기형
- [생성 음운론] 기저형 설정기준
 - ➡ 예측가능성
 - ➡ 경제성
 - ➡ 타당성

2013	8번
전공A문법	기입형

8. 다음은 반의 관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 두 단어가 하나의 의미 성분에서만 대립할 때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 가. 장끼 : [+ (㉠)] [+평] [+새]
나. 까투리 : [- (㉡)] [+평] [+새]

○ 어떤 단어가 (㉢) 을 /를 가질 때, 일대다(一對多)의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예)

벗다	[-착용] [+몸통]	↔	[+착용] [+몸통]	입다
	[-착용] [+머리와 얼굴]		[+착용] [+머리와 얼굴]	쓰다
	[-착용] [+손]		[+착용] [+손]	끼다
	[-착용] [+발]		[+착용] [+발]	신다

***기본아이디어**
이 문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 중에서 ‘반의 관계’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한 문제이다.

‘ 단어어와 구별되는 다의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의어와 관용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지식 사항과 교사가 범할 수 있는 오류, 학습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과 학습자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2013
전공A문법

9번
기입형

9.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보기>와 같이 접미 파생어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과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1) 멋쟁이, 바가지, 불그스름하다, ㉠ 잡히다
(2) 먹이, 얼음, ㉡ 높이다, 정답다

<보기>

○ 자료 (1)과 (2)를 통해 접미 파생어는 파생어의 (㉠)와/과 어근의 (㉡)이/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과 ㉡를 통해 접미 파생어 중에는 그것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이/가, 그 어근이 서술어가 되는 문장의 (㉣)와/과 다른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본아이디어 : 접미 파생어의 특성
- '접사에 의한 파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의 문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조직한 문제이다.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접사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특성, 접미사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특성 등이다
- 접사의 개념 : 어근의 의미를 제약 ➡ 문법적 의미의 제약과 실질적 의미의 제약
 - 접사의 분류기준에 따른 접사의 종류
 - 접사의 특성 ➡ 단어와 구별되는 접사의 특성 ㉢예 관형사성 접두사: 관형사, 부사성 접두사: 부사 판별의 기준
 - 접두사의 특성과 접미사의 특성 ➡ 접미사에 대립하는 접두사의 특성, 접두사에 대립하는 접미사의 특성
 - 문법적 의미의 제약 (지배적 접사 : 통사적 접사 ➡ 품사의 전성 및 문장구조의 변화)
 - 실질적 의미의 제약 (한정적 접사 : 어휘적 접사)
 - * 문법적 의미는 물론 실질적 의미의 제약에 관여하는 접미사 : 사동, 피동 접미사 등
 - 전통적인 국어의 조어법 (단어 구성소와 단어 형성소)
 - 우리 국어는 접사가 발달했다 (접두사와는 달리 접미사는 주로 단어 형성소의 역할을 담당)
 - 형용사가 발달했다 (형용사와 접미사 : 명사 파생 접미사, 부사 파생 접미사는 기출)
 - 감각어가 발달했다
 - 색채어, 온도어가 발달했다

2013	3번
전공A문법	서술형

3. 다음은 중세 국어의 ‘ㅼ’와 ‘ㅼ’가 이중 모음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탐구 학습한 내용이다. 탐구 과정에 따라 분석 내용 (2)와 (3)에 준하여 (1)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3점]

학생의 질문	중세 국어에서 ‘ㅼ’와 ‘ㅼ’는 왜 이중 모음인가요?
교사의 지도 방안	중세 국어에서 ‘ㅼ’, ‘ㅼ’로 끝나는 단어들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어떠한 형태 교체를 보이는지 주목하게 한다.
교사의 수집 자료	(1) 내해 드린 업도다 梁은 드리리라 불위 기쁜 남근, 根은 불위라 妖怪로된 새 오거나, 影은 그르메라 (2) 스ㅼ예, ㅼ해 디여 사스ㅼ ㅼ해 여히여 막대ㅼ 상커나, ㅼ해 업대여 (3) 프를 쫓오 안ㅼ니 香을 무티면 香이 ㅼ오 몸 아래 블 내오, 히미 세오
분석 내용	(1) _____ (2) 부사격 조사 {예} 및 어미 {-어}와의 결합에서 체언 또는 용언 어간이 단모음 ‘이’ (스ㅼ, 다-) 또는 반모음 ‘ㅣ’ (ㅼ, 여하-)로 끝나는 경우, 조사와 어미의 형태는 반모음 ‘ㅣ’가 다해진 ‘예’와 ‘-어’로 나타난다. ‘막대’와 ‘업대’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어미 {-고}와의 결합에서 용언 어간이 ‘ㄹ’ (쫓-) 또는 반모음 ‘ㅣ’ (ㅼ)로 끝나는 경우, 어미의 형태는 ‘ㄹ’이 탈락된 (또는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내’와 ‘세’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결론	중세 국어의 조사 및 어미 관련 형태 교체에서 공통적으로 ‘ㅼ’와 ‘ㅼ’가 반모음 ‘ㅣ’를 가진 이중 모음들과 함께 행동한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ㅼ’와 ‘ㅼ’는 반모음 ‘ㅣ’를 가진 하향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 기본아이디어 : 선생님! ‘ㅼ’나 ‘ㅼ’는 이중모음 아닌가요? ‘ㅼ’의 경우 ‘ㅅ+ㅣ’, ‘ㅼ’의 경우 ‘ㅅ+ㅣ’잖아요

이 문제의 경우 학교 문법에 근거하여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설명할 때 학습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문 - ‘ㅼ’와 ‘ㅼ’가 왜 단모음인가 - 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여 학습자의 의문을 탐구학습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수업전략을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된 문제이다. (단모음의 체계를 설명할 때 학습자들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문제해결 전략으로 설계된 지도안)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를 이해한다’라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하고자 할 때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음운은 다음과 같다
1) 단모음의 경우 : ‘ㅅ’, ‘ㅼ’, ‘ㅅ’, ‘ㅅ’ 4개의 음운
2) 이중모음의 경우 : ‘ㅅ’

현대 국어 단모음 체계의 경우 학교 문법에선 10개의 단모음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위에 열거한 4개 음운을 단모음으로 볼 것 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교사의 경우 정확한 이론적 배경을 공시, 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 공시적인 관점

- ㄱ) 단모음 ‘ㅅ’와 ‘ㅼ’가 통합되어 발음되는 경향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ㄴ) 단모음 ‘ㅅ’와 ‘ㅅ’가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국어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도 참고하여 보충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ㄷ) 단모음 체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근거로 학교문법에서 언급한 ‘10개의 단모음 체계’의 의의와 한계를 국어 현상을 중심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통시적인 관점

- ㄱ) 단모음 체계의 변천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ㄴ) 이중모음 체계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ㄷ) 이중모음과 반모음(활음)의 개념 및 종류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ㄹ) 학교문법에서 언급한 이중모음 ‘ㅅ’의 성격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2013
전공A문법

4번
서술형

4. 다음 자료는 인칭 대명사 ‘그’와 재귀 대명가 ‘자기’의 선행 명사구 조건을 지도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고, <보기>는 자료의 (1)과 (2)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행 명사구 조건을 학생이 정리한 결과이다. 자료의 (1)과 (2)에서 ‘그’와 ‘자기’의 선행 명사구가 무엇인지 각각 쓰고, 이를 근거로 <보기>의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4점]

(1) 가. 영수는 동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봤다.
나. 영수는 동수를 자기 사무실에서 봤다.
(2) 가.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순희도 좋아한다.
나.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는 순희도 좋아한다.

<보기>
‘그’와 그것의 선행 명사구는 동일한 문장 안에 있고, ‘자기’와 그것의 선행 명사구도 그렇다.

※ 기본 아이디어

형태 • 통사론 영역에서 학습자가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동일한 형태이지만 기능이나 의미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조사나 어미,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는 단어의 경우가 좋은 학습 자료가 된다. 다음의 도표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빈 칸을 완성해 보자

구분	형태면	기능면(통사론적 특성)	의미면(의미론적 특성)	제약(통사/의미론)
조사	와/과	접속조사 부사격조사(함께함) 부사격조사(비교)		
	(이)며			
	(에)다			
	(이)랑			
어미	~(이)			
	며			
	~고			
단어	그	대명사(인칭) 대명사(재귀)		
	자기	대명사(인칭) 대명사(재귀)		
	여기	대명사 부사		
	바로			

2013	5번
전공A문법	서술형

5. 다음은 대칭 동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대칭 동사의 특성을 대칭 동사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3점]

- (1) 가. 영수가 동수와 공원에서 만났다.
나. 영수가 동수와 공원에서 놀았다.

(2) 가.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만났다.
나.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놀았다.

- <보기>
1. 자료의 (1)을 참고하여 필수적 부사어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의 특성을 언급할 것.

2. 자료의 (2)를 참고하여 문장의 중의성 여부를 언급할 것.

3. 문맥에 의한 문장 성분 생략은 고려하지 말 것.

기본다지기 : 선생님, 다양한 문장에 쓰인 ‘와/과’라는 조사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사용된 문장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접속조사인지 함께함 부사격 조사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ㅠㅠ

서술형 4번 문제와 아이디어가 동일한 문제이다. 4번이 동일한 형태를 지닌 대명사 ‘그’와 ‘자기’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라면 5번은 동일한 형태의 조사 ‘와/과’의 정확한 명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능상의 차이는 물론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위의 4번과 5번 문제를 종합해 보면 품사론 영역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품사의 통용’에 관한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대상은 동일한 형태를 지닌 단어의 품사를 규정하는 근거를 문법 교육과정에 제시한 품사 분류의 기준인 형태, 기능, 의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탐구학습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품사론 영역을 정리할 때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품사 고정과 품사 통용의 개념 및 각각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문법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리해 둘 것

2) 학습 자료로 제시된 단어의 품사 규정은 문법 교육과정에 제시된 품사 분류의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을 숙지할 것

3) 학습 자료는 국어 현상에 바탕을 둔 문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

4) 학습 자료의 유형은 조사, 어미, 품사 통용의 대상이 되는 단어

- 가. 동일한 형태의 경우

 - 기능이나 의미상의 차이를 근거로 해당 단어의 특성을 파악한 후 품사를 규정할 수 있는 사례
 - 형태와 기능은 동일하나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
 - 기능이나 의미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 경우는 특히 주의할 것
- 나. 서로 다른 형태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의미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
 - 기능이나 의미상 제약이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할 것

2013	1번
전공B문법	독서와 문법

1. <독서와 문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 교사는 해례본 『훈민정음』을 설명하는 글을 활용하여 글의 짜임을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학습 자료는 수업에 활용한 글이고, <보기1>은 문단별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학생이 그린 구조도이다. 이들을 참조하여 <보기2>의 지시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10점]

① 혹 문자의 사용 설명서를 본 적이 있는가? 인류의 문자사에서 문자 제작자가 직접 제공한 문자의 사용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한글은 창제자에 의해 그것의 사용 설명서가 분명하게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자들과 차이가 있다. 1446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례본 『훈민정음』이 바로 그것이다.

② ‘훈민정음’은 신문자(新文字)의 이름이자 책의 이름이기도하다. 해례본 『훈민정음』의 앞부분에는 본문에 해당하는 어제 서문과 예의가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섯 개의 ‘解(제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와 하나의 ‘例(용자례)의 순서대로 구성된 해례가 자리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편찬에 참여한 8명의 집현전 학자들을 대표해 대제학 정인지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③ 다섯 개의 ‘解 중 첫 번째인 제자해에는 신문자의 제자 원리가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제자해의 모든 설명은 중국의 성운학과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신문자의 제자와 운용에 천지만물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였다.

④ 초성은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ㄱ, ㄴ, ㄷ, ㄹ, ㅇ’ 5개의 글자가 각각 오음을 대표하는 기본자인데, 이 기본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상형한 것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ㄷ’은 입의 모양을, ‘ㄹ’은 치아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문자의 모양이 그것을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러한 설명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현대 조음 음성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발음되는 말소리에 대한 정확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설명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ㄱ → ㅋ, ㄴ → ㄸ → ㄹ, ㄷ → ㅌ → ㅎ, ㄹ → ㄽ, ㅁ → ㅍ, ㅂ → ㅃ, ㅅ → ㅆ, ㅇ → ㆁ → ㆏’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 냈다. 이때 획이 더해지는 것은 소리가 조금씩 세어지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해 후대의 학자들은 한글이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 즉 변별적 자질을 문자 제작에 반영한 유일무이한 자질 문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⑤ 중성의 경우에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형해 기본자 3개(ㄱ, ㄴ, ㄷ)를 만들고, 이를 다시 서로 결합하여 초출자(ㄱ, ㄴ, ㄷ, ㄹ)와 재출자(ㄱ, ㄴ, ㄷ, ㄹ)를 만들었다. 초출자의 경우 ‘ㄱ’과 ‘ㄴ’이 결합된 ‘ㄱ, ㄴ’은 천지가 처음 만난 뜻을, ‘ㄱ’과 ‘ㄴ’이 결합된 ‘ㄴ, ㄱ’은 천지의 작용이 사람을 매개로 사물에 발현된 뜻을 지니고 있다. 재출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起於’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출자가 반모음 ‘ㄹ’로 시작되는 상황 이중 모음임을 말한 것이다. 또한 ‘ㄱ, ㄴ, ㄷ, ㄹ’에서는 ‘ㄱ’과 ‘ㄴ’의 위쪽과 바깥쪽에, ‘ㄴ, ㄱ, ㄷ, ㄹ’에서는 ‘ㄴ’과 ‘ㄷ’의 아래쪽과 안쪽에 위치하는데, 여기에는 각각 하늘과 땅에서 생겨나 양과 음이 되는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음양의 원리로 중성을 설명한 것은 모음조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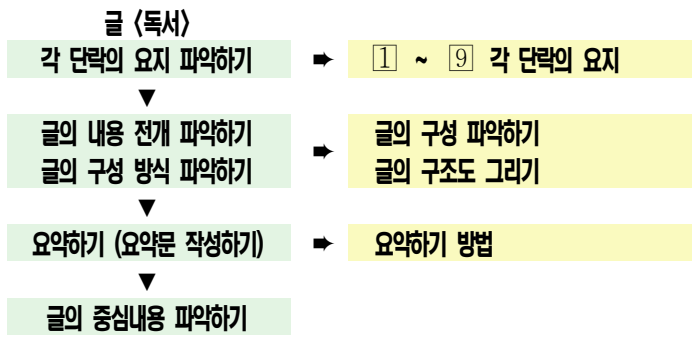
⑥ 음절을 이루는 세 요소인 초중종성에 대해 해례에서는 각각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를 마련해 설명하고 있다. 초성과 중성에 대해서는 제자해에 이어 초성해와 중성해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다. 초성해에서는 음절에서 초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중성해에서는 중성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상합(相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종성해에는 완급(緩急) 대립과 8종성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오음에서 ‘ㄱ’과 ‘ㄴ’, ‘ㄷ’과 ‘ㄹ’, ‘ㅁ’과 ‘ㅂ’, ‘ㅅ’과 ‘ㅆ’, ‘ㅇ’과 ‘ㆁ’이 각각 종성에서 서완(舒緩)함과 축급함의 발음 특성으로 대립되고 있으며, 실제로 8개의 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으로 종성 표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동일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들이 조음 방식에 따라 그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종성 위치에 나타났던 음절 말 중화 현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대목으로 당시 말소리에 대한 음성학적, 음운론적 이해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⑦ 초중종성이 하나의 음절로 합하여 표기되어야 하며 중성에 따라 초성과 종성의 결합 양상이 상하 또는 좌우로 달라진다는 점이 설명되었다. 또한 ‘ㅅㅏ, ㅈㅏ, ㅊㅏ’에 서처럼 초중종성에서 2자와 3자가 합용될 수 있음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각 음절의 성조 표시를 위한 방점 표기의 마련은 분절음이 아닌 초분절음을 표기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반설경음 및 특이한 이중 모음 표기에 대한 언급은 해례 편찬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당시의 말소리를 관찰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이처럼 합자해에는 초중종성의 음절 표기 및 합용에 대한 설명, 방점 표기, 그리고 세밀한 음성적 표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⑧ 끝으로 용자례에는 94개의 국어 어휘들에 대한 실제의 표기 용례가 실려 있다. 용자례는 신문자의 실험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시 존재했던 어휘들의 모습을 한자리에

기본아이디어 : 09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과목이나 영역 간의 통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독서와 문법> 영역은 문법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문법(언어) 능력이나 문법(언어) 사용능력을 묻고 동시에 읽기나 독서 영역에 해당 능력이나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이미 기존 대입 수능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입 수능 문제로 출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의 기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요구되는 지식사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화법과 작문> 영역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 대안을 마련해 보자. <보기2>의 3번 사항과 관련, 08년도 공청회 자료 중 ‘국어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참고해 보고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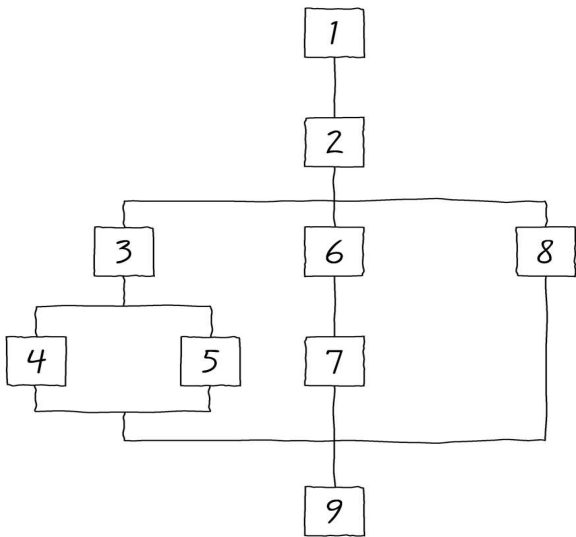
글의 내용 <문법>

서 볼 수 있는 어휘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러울[𪎐], ‘사비[𪎐], ‘바육[鷄
鰓], ‘슈름[雨繭] 등과 같이 이곳 용자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어휘 표기의 존재가 소
중하다.

9] 이처럼 우리는 해례본 『훈민정음』의 곳곳에서 언어에 대한 당시 학자들의 놀랄
만한 관찰과 이해를 보여 주는 대목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20세기 구조주의 언
어학자들의 눈으로 당시의 언어를 관찰하고 기술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독보적인 문
자와 그것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우리에
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보기 1>

※ 위 글의 구조도를 그리시오.



<보기 2>

1. <보기 1>에서 학생이 그린 구조도에 문제 가 있는 곳을 찾아 지적하
고, 제시된 학습 자료에서 신문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요약하여 쓸
것.
2. 지시 1을 바탕으로 읽기 교육에서 글의 짜임 파악하기와 요약하기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쓸 것.
3.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읽기 지도를 해야 하는 국어 교사의
소양과 관련해 결론을 맺을 것.